

관련 업계의 협력으로 상생(相生)의 길 찾아야



진영준 전무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미국 애틀란타(Atlanta)주의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된 2008년 그림 및 액자제품 전시회(Deco-Expo Atlanta)가 열렸다. 올해도 세계 최대의 그림 및 액자제품 전시회인 이 행사에 매년 국내업체들을 이끌고 참석하고 있는 한국프레이밍공업협동조합 진영준 전무로부터 세계 액자 몰딩시장의 현황을 알아봤다.

국제 액자몰딩 시장의 상황은?

전반적 불경기의 영향으로 국제 액자몰딩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액자시장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가상승으로 인해 액자시장도 직격탄을 맞아 소비가 위축되어 한국기업의 PS액자몰딩 수출도 많이 감소하였다. 중요 국제전시회 중 매년 2월에 열린던 이태리 시카전시회도 참가자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3월에 열린던 미국 뉴욕전시회는 취소되었고 이번 애틀란타 데코전시회는 참가 업체수도 작년의 30개국 350여 업체가 1,500부스에 참여했던 것에 비해 22개국 250여 업체가 1,000여부스 참여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매우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국내업체 참가 규모 및 성과

우진M&M(주)를 비롯한 10여개 업체가 참가 수출상당액 6,800,000달러에 달하며 그 중 1,500,000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록했다.

2007년도 전시회에서는 소재의 고급화, 고전적 복고풍이 유행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흐름인지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다 간결하고 단순한(심플한) 디자인이 많이 나왔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저가품 공세, 자연 소재의 약진 등으로 한국산 스티로폼재활용 수지몰딩 및 액자의 수출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파구로 인테리어용 몰딩의 개발 및 공급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전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알려진 중국이 유가 및 원자재 상승 그리고 위엔화 절상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근래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격 우위의 장점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품질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아 중대형 바이어가 한국기업 쪽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앞으로 원자재 업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 이 호기를 잘 살려야 만이 왕년의 대한민국 PS몰딩의 명성을 이룰 수 있다.

액자몰딩 시장의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인테리어용 몰딩시장은 그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시장도 끊임 없는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한 고급화 및 지속적 디자인 개발'이라는 해결 방안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효율성 있는 소재 연구 개발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관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특별한 참가소감이 있는지

시장상황은 매년 유동적이다. 미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자연적인 영향인 허리케인 구스타프와 아이크로 인해 참가자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이란 거대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

월마트와 같은 중대형 할인유통업체가 10여 곳이 있고 매장 또한 한 유통업체마다 1,000여개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국내에서 실속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투자하여 수출할 것인가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PS수지물딩 관련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